

배우는 사람은 일체를 스승으로 알아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야 올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신 게 있었을 겁니다.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계율을 바꿔라. 방편도 바꾸고. 난 꼭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둘 하나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이 천체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법 따로 있고 우리들 법 따로 있고, 시냇물 따로 있고 과거 법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찾건을 가리키시며)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전에는 똑배기잡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좋게 꽃처럼 만들어서, 찻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놔죠. 그런데 찻잔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이름이 지금 현실에 필요한 거지, 전자에 똑배기라고 했다고 해서 찻잔을 똑배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다 똑같아요.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오늘, 오는 오늘이나 똑같은데 발전하는 대로 용도와 그 방편이 변하죠. 자꾸자꾸.

그래서 어린이를 갖 낳아 놓으면 애기라 그러

또는 한생가 내서 움직여라겠다 하면 움직여라는 것이 화신이니 어디 딴 데서 나오니까, 다?

그러니 내가... 그 책을 보든지 안 보든지 틀림 없이 그 내용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뒷면에 약간의 좀 허술한 데가 있지만 그대로 아주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긋나질 않게 한다면, 진짜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그 사방이 특 타진 공부는 오히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걸리는 게 없지만 벌써 책을 써 놓으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자유스럽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도반들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진짜로 들어가서 진짜 힘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로만 했지만, 사실은 힘이 없이 그대로, 내가 목마르면 (컵을 들어 보이시며) 물마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컵이 저기 있는데 컵은 어떻게 생겼고 물은 얼마나 담기고 찼고 만들어졌고 찼고 찼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대와 같아서야 이놈의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죽으러 관 속에 들어간다는데 관 속에 들어갈 사이가 어딴가? 죽어야 관 속에 들어가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관 속에 들어가나?

히! 마음은 선 것도 아니고 안 선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스러운 것이야, 마음이, 그런 건데 몸을 추구하려서 그냥 매어 놓는다고 해서 그놈의 마음이 통쾌하게 나올까? 그리고 이런 게 있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적거리게 되는 거를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이 공부 못해. 오산이!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쪽 마음도 또 하나가 되거든.

그리고 아까도 남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했지. 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이쪽 물에 가서 놀려면 이쪽 물에 순응해야 하고, 저쪽 물에 가서 놀려면 저쪽 물에 순응해야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되 진리에 순응하라. 잊지말고 얘기했죠? 부처님의 뜻을 따르되 진리에 순응하고 살라.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의 가풍(家風)대로 이 말 저 말 없이 그냥 같이 잘 따라준다면 아무 이유가 붙질 않아. 응? 알겠나? 내가 살았다고 전자에 배워오면 그 습이 어딘가가 모르게 북쪽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거야.

▲질문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크스님: 아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서 몸을 매어서 얹혀 놓겠다는 거지, 네 몸을 내가 자유스럽게 하려면 하고 그러지 네 몸을 내가 왜 동겨 매 놓느냐 이거야. 이 세상 법이 그러한 것만은 아니야.

▲질문자: 그것도 제가 필요해서 간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못할 것도 없지.' 하고 어차피 한 번 정도는 그것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크스님: 허허, 이거 봐, 스승의 말에 따라서 응하는 것도 좋지. 하기가, 그러나 마음이 확고하게 완결되지 않아 가지고는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 그러니 참, 나는 그래도 어디에 앉지도 토굴이 어디에서도 토굴이요. 아, 이것이 지금 토굴이지 뭐야, 이 몸통이가 그냥 토굴이야. 몸통이가 토굴인데 어디 토굴로 또 가? 하, 지금 토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토굴을 내가 끼고 다니면서 어찌 토굴을 또 찾느냐 이 소리지. 그 토굴을 갖다가 토굴에다 또 넣으니, 이런 정말 이치에도 닿지 않건만 지금 세상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그러나 이는 누구든지 피아노를 가르칠 때는 처음부터 앉는 자세와 손놀리는 거를 요렇게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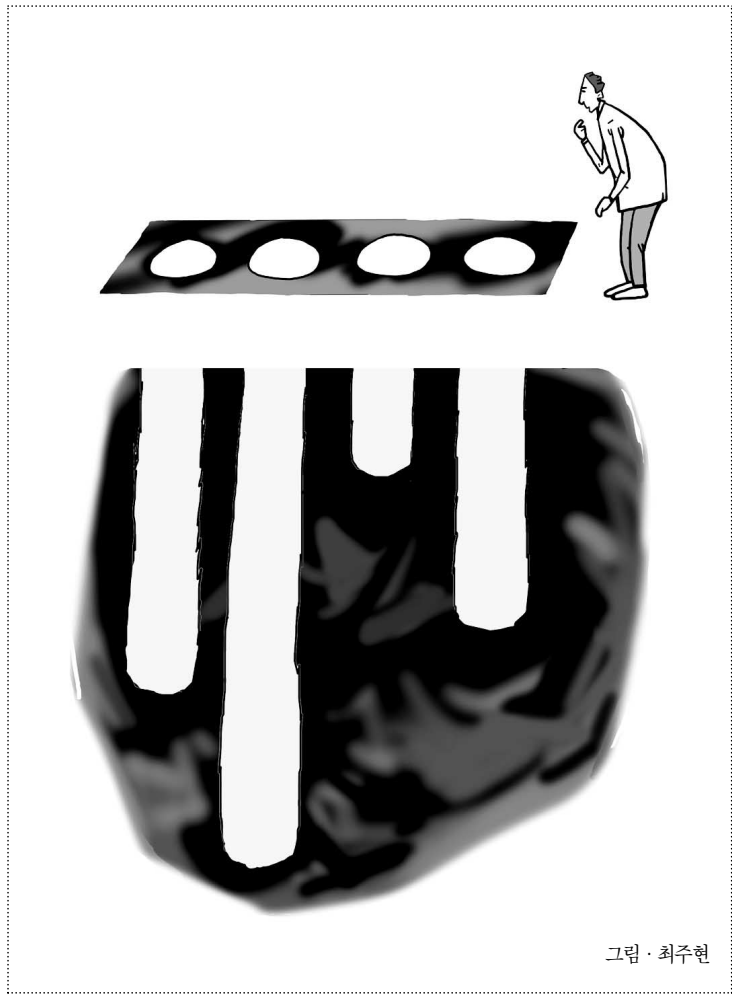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잡아서 가르쳐야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삐뚤게 앉았든 말았든, 손놀림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게나 배워 가지고 나중에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고쳐져, 습이 돼서, 짚대야, 그런. 이 공부하는 데는 권속도 없고... 허허허... 네 스승 내 스승도 없어, 내가 말하는 거를 좀더 저 언덕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자: 잘 알아들었습니다.

▲크스님: 귀신하고 친구가 되려면 귀신이 돼야 귀신하고 친구가 되잖아? 이런 제길! (대중 웃음) 아, 정말입니다! 귀신하고 친구가 되려면 귀신이 돼야 귀신하고 친구가 되고, 개구리하고 친구가 되려면 개구리가 돼야 개구리 친구가 되고 모두

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력을 느끼기 때문에 짚대로, 변해서 나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저승 이승 왕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승 이승 왕래하는 자는 애 당초에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갈 것도 없다 이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럼 그만 할까요?

*위 법문은 1994년 5월 1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고, 조금 자라면 화쟁이라 그러고, 조금 더 자라면 청년이라고 하고, 조금 더 자라면 어른이라고 하고, 더 자라면 늙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물집이 생긴 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갖 놓은 얘기를 어떻게 붙었다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이름도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며 발전이며, 우리가 물집과확보다도 심성과학으로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공부입니다.

내가 이랬죠. 이 전력이 (전등을 가리키시며) 들어오는 것을, 태양열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는 못 보죠? 보지도 못하고 쥘 수도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죠? 그러나 그 태양열을 받을 장비만 해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태양열이 들어와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광대한, 그 묘한 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습니다. 짚대요. 아주 짚대 있으니까 그대로 밧고 말겨라 이거죠. 짚대 있는 거니까, 살아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짚대 있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부처는, 내가 법당에 들어가 부처가 있는 거고, 변소간에도 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평등하게 생각하면 부처요 생각을 한생각 냈다면 법신이요.

내가 목이 말라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마실 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에 올 1년 만이라도 더 진지하게 들어가서 보충해서 내놓으시도록 하세요. 앞뒷면에 더 좀 보충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한마음 식구고 하나로 돌아가는 데 틀림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에서 한마음을 아무개님이 바로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의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번 해 보시면 알 바가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 나오니까요.

▲질문자2: 금왕에서 머물면서 한 10개월 공부했는데 다른 데 선방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아는 것도 자꾸 물으려 하셨는데 90% 알고 10% 몰라도 저는 질 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우중도 좋고요. 가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스님: 이것 봐, 책적은 둘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나오고, 생물에서도 나오고, 동물에서도 나오고, 사람에게도 나오고, 하처 못한 예한테서도 나와, 책적이라는 건. 그런데 왜 속야? 참 내! 아니, 누가 이라고 하고 속고 저라고 하고 속고, 길

행자(예비스님) 모 집

-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053)474-8228
011-9852-0075 (총무스님)

전사식 2중문 3중경보 특헌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

탈종공고

- 사찰명 : 무급사
- 주 지 : 보덕(박후남)
- 주 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2리 689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 5. 23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금선사
- 주 지 : 도일(배재학)
- 주 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3리 606

위 사찰(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0년 5월 일

(재)대한불교 일통선교종 종정 법하